

살림교회 주보

+ 우리는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는 영의 정원사들입니다! +

성령강림 후 넷째 주일 공동예배 순서

시간 / 2026년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김지호 목사

개회 예전

예배의 부름 / 예배 인도자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시86:4) 어제 내린 여름비가 말랐던 대지를 흠뻑 적셨습니다. 밭의 채소들과 가로수들도 목을 축이고 잎사귀를 말갭게 씻었습니다. 한층 풍요로워진 느낌입니다. 세상길을 걷느라 지치고 숨 가쁜 우리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 갈라진 목을 축이고 묻었던 세월의 먼지들을 씻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시편 시인처럼 노래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찬송 / 새찬송가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 다함께

*공동기도 / 다함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비가 오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짙게 깔린 두꺼운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리지는 않겠지요. 순간순간 변하는 날씨를 보면서, 우리의 흔들리는 일상과 변하는 기분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변하는 날씨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고, 또한 우리와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환경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흔들리는 일상과 변하는 기분이, 반드시 뭔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맞게 되는 삶 자체입니다. 우리 표면적인 삶 아래 깔려 있는 저 도도한 생명의 흐름, 각기 다른 피조물들을 묶어 흐르는 저 하나임(eness)의 흐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다시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존재가 줄어들어 오래된 의미들이 되돌아오려 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어, 우리의 참된 신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곳으로 부는 바람을 향해 순간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유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제와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송 / 새찬송가631장 우리 기도를 / 다함께

우 리 기 도 를 들 어 주 시 고
 주 님 의 평 화 를 내 려 주 소 서 아 멘

Hear our prayer, O Lord

*사죄기도 / 다함께

목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 대신 망상을, 환대 대신 적대를, 참된 고독 대신 외로움과 위축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 주님, 우리는 드러난 현상만 보면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고 예측하고 비평하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실의 세계보다는 생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회중: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사: 주님,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비난하거나 적대감이나 두려운 생각을 갖고 사람이나 상황에 다가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같이: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둠기도 / (모든 생각과 감각을 침묵 안으로 거두어들이며) 다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아서,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던지십니다.”(미7:6)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주님의 말씀과 2천년 교회 예배 전통에 따라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잘못은 용서받았으니 기뻐하

십시오. 그러므로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며 사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송 / 새찬송가4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함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
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 삼위 계영 광아 멘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a 4/4 time signatur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b and Eb).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has a vocal line and a bass line. The second system also has a vocal line and a bass line.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vocal line: Eb, Bb7, Eb, Bb, Eb, Bb, F7, Bb.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are placed below the vocal line.

*평화의 인사 / 다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중: 또한 목사님과 함께!

(다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찬송 / 새찬송가389장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 다함께

말씀 예전

설교전기도 / 다함께

“어디로 가야할 길 내게 알려 주소서. 내 영혼 당신을 향하여 있나이다”(시 143:8)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능력을 키워주십시오. 우리의 편견이나 선입견, 제 식으로만 듣는 고정된 사고방식을 거두시고, 실제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시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독서 / 창세기21:8~21(구약30쪽) / 이하영 교우

응답송 / 새찬송643장 아멘 / 다함께

아 멘 아 멘 아 멘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a 4/4 time signature with a key signature of two flats (Bb and Eb). It consists of two systems of staves. The first system has a vocal line and a bass line. The second system also has a vocal line and a bass line. Chord symbols are placed above the vocal line: Ab, Eb, Eb, Eb, Eb, AD. The lyrics are in Korean and are placed below the vocal line.

성서교독 / 시편86:1~10,16~17(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함께

인)주여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내몸은 가련하고 불쌍한몸 아닙니까
 회)주님에게 바친이몸 목숨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주님 이몸건져 주옵소서
 인)종일토록 주님향해 전심전력 기도하니 주님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주님제가 진심으로 주님만을 우러르니 종의삶을 기쁨으로 가득채워 주옵소서
 인)우리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심 가득한분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모두 돌보시네
 회)주님저의 간구기도 귀기울여 주옵시고 애원하는 목소리를 부디들어 주옵소서
 인)우리주님 틀림없이 응답하실 분이기에 고난고초 당할때에 주께애원 하나이다
 회)온갖우상 가운데서 어떤신이 주같으며 우리주님 하신일을 어떤신이 하리이까
 인)주님께서 손수지은 민족들이 모두나와 오직주께 경배하며 영광돌려 비나이다
 회)위대하신 주님께서 놀라운일 하시오니 주님만이 오직홀로 하나님이 되옵니다
 인)주님이몸 돌아보사 불쌍하게 여기소서 부디제게 한이없는 주님은혜 베푸소서
 회)은총징표 보여주어 원수겁을 먹게하고 주님저를 위로하사 담대하게 하옵소서

제2독서 / 로마서6:4~11(신약298쪽) / 이하영 교우

*복음서 / 마태복음10:26~31(신약18쪽) / 이하영 교우

*응답송 / 새찬송가637장 / 다함께



설교 / 이삭과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 김지호 목사

찬송 / 새찬송가334장 위대하신 주를 / 다함께

봉헌과 친교 예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봉헌 / 주기도송(찬송 중 봉헌자 : 이하영 교우)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불거룩한
사 주님 나라 인치시
고 뜻 이 이루어지 이 다 오기도
을 먹이시 고 우리 들의 죄를 사하시
하옵시고 또 시험 에 들게 마
시고 악에 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 - 라 주의 권 - 세 주의 영 - 광이 임 하시
원 히 아 - 멘 아 - 멘

중보기도 / 목사

파송 예전

*마침찬송 / 새찬송가639장 주 함께 하소서 / 다함께

보통으로 (Tempo: 4/4) 박경환, 1963

주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님께 비오니 주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 함께 하소서 축도송

*위탁의 말씀 / 김지호 목사

성령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근원에서 만나듯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일상도 변하는 기분도 모두 아버지 안에서 만납니다. 여러분의 표면적인 삶 아래 깔려있는 도도한 생명의 흐름, 각기 다른 피조물들을 묶어 흐르는 저 하나임(Oneness)의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십니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테오리아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지는 것은
받아들이는 자의 방식에 따라 받아들여진다.”

토마스 아퀴나스, <보통의 지혜>에서 재인용

“일상을 가꾸는 영성” | 대한예수교장로회 **살림교회**

살림영성센터

1038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83(대화동) 성은빌딩4층
T.031-912-4930 • 카페 <http://cafe.daum.net/Reviving-church>

• 담임목사 | 김지호 010 - 5101 - 4935

